

이란 개입 가능성...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산 위기

설리번 안보보좌관 “이스라엘 북쪽에 두번째 전선 형성 될 위험”
 이란 외무 “이스라엘 ‘범죄’ 계속하면 중동 현상유지 장담 못해”
 이란 혁명수비대 시리아 병력 이동...美 항모 동지중해 추가배치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전쟁’의 확산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개입 등에 의해 확산할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이 격화하고, 북쪽(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블라와 대치한 이스라엘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물론 이란의 개입도 위협”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이 이번 사태에서 방관자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선 우리는 이란의 ‘대리자’인 헤즈블라를 우려한다”며 “물론, 이란이 어떤 형태의 직접 개입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 가운데,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예조르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경경 메시지를 내놨다.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계속한다면 이 지역(중동) 현상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추진 항모 제럴드포드호에 이어, 또 다

른 핵 추진 항모인 드와이트아이젠하워호를 동지중해로 배치하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산하에 A-10 공격기를 비롯해 전투기를 추가로 보내 공군력을 보강하는 등 이란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축출한다는 주장적 목표를 이스라엘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가자지구는 잔인하고 사악한 테러 조직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위협일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도 도전”이라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평화와 존엄, 안정 속에서 살게 할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의 민간인 안전과 식량, 물, 대피처 등에 대한 접근권이 이스라엘, 유엔과 다른 중동 국가들에 의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자지구내 미국인들이 인접 국가인 이집트로 이동하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전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5일 이집트로 도착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은 현재 의회 승인을 추진 중인 대우크라이나 및 대이스라엘 지원, 남부 국경통제 강화 관련 패키지 예산액이 20억 달러(2조 7000억 원)를 ‘상당히’(significantly) 넘는 규모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다친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심도시 가자시시의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 7일 시작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지금까지 양측에서 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中 일대일로 포럼 오늘 개막...시진핑·푸틴 ‘무제한 협력’ 강화할까

군사 협력 문제 등 논의 가능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애하는 친구’로 부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7~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 포럼에 참석,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구소련 밖 국가에 발을 내딛는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더 시선을 모은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

기로 협력 강화를 다짐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에 들어가기 며칠 전 ‘무제한 협력’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3월 시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면서 브로맨스를 과시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시 주석과 정상 회담을 통해 북-중-러 반서방 연대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 CI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 틀 안에서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이 이번 방중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며, 에너지 분야 새로운 협력과 자국 통화 결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 수행단에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최고경영자(CEO)와 이고리 세친 로스네프트 CEO 등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수장들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가스 거래가 합의될지는 확실치 않다.

양국 정상이 군사 협력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장은 로이터에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군사-핵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만큼 공식적인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40개국·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바이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점령은 실수될 것”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CBS 방송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60분’ 전문에서 지난 7일 하마스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교전과 관련, “현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을 지지하진 않아요”는 질문을 받고는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내 견해로는 하마스와 하마스의 극단적 분파들은 팔레스타인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이 가자를 다시 점령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스라엘군(IDF)은 지난 2006년 1월 평화 협정 이행을 위해 중동전쟁 때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후 38년만에 주둔 병력을 철수하

고 유대인 정착촌 20여곳을 떠난 바 있다.

이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제에 놓였으나 하마스가 2007년 6월 내전 끝에 서안지구에 근거지를 둔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따르던 파타 세력을 축출,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 선명한 반대 목소리를 낸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 돌입이 임박한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전면 해체 입장에 지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전쟁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은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35세 세계 최연소 대통령 탄생

탄핵 위기를 맞은 현 대통령의 조기 퇴진 결정에 따라 남미 에콰도르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보결 성격의 대통령선거에서 30대 정치 신예가 당선될 전망이다.

국민민주행동(ADN) 소속 다니엘 노보아 아신(35) 당선인은 15일(현지시간) 치러진 에콰도르 대선 결선 투표에서 시민혁명운동(RC)의 루이사

곤살레스(45)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지난 8월 본선 1차 투표 2위로 결선에 오른 노보아 당선인은 이날 90.56%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52.29%의 득표율로, 47.71%를 득표한 ‘1차 1위’ 곤살레스 후보에 신승을 거뒀다. 곤살레스 후보는 자신의 패배를 승복했다.

1987년 11월생인 노보아 당선인은 에콰도르

최연소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직전 기록은 1979년 당시 38세 때 취임한 하이메 몰도스 아길레라 전 대통령이다. 그는 취임하면 세계 최연소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당시 세계 최연소 지도자를 가브리엘 보리치(37) 칠레 대통령으로 소개했는데, 노보아 당선인은 보리치 대통령(1986년 2월생)보다 어리다.

그는 바나나 재벌로 알려진 알바로 노보아(72)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